

# 여성·삶·정치

지은희·이희경



성평등도서관 여기



GL00004544

서울시여성가족재단

5.4  
54여서

00004544 한국사회연구회

## 여성 · 삶 · 정치

---

여성한국사회연구회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417-3  
영나빌딩 102호 전화/(02)313-7068

글쓴이 : 지 은 희 이 희 경

그린이 : 오 성 윤

발행일 : 1990. 12. 27

찍은곳 : 아침기획

## 차례

---

1. 우리는 모두 여성입니다 / 3

---

2. 여성 그 고단한 삶 / 9

---

3. 여성의 삶과 정치 / 2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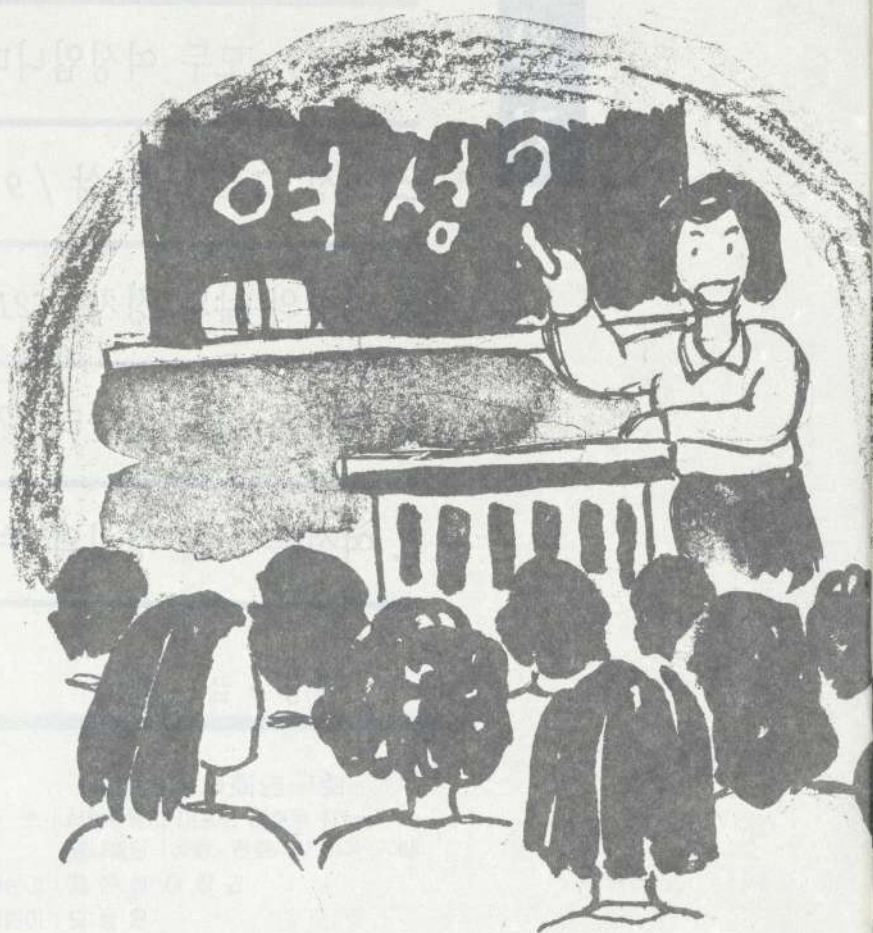
4. 여성은 정치의 들러리? 구경꾼 / 37

---

5. 여성은 이제 정치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 49

---

이정숙님께서 기증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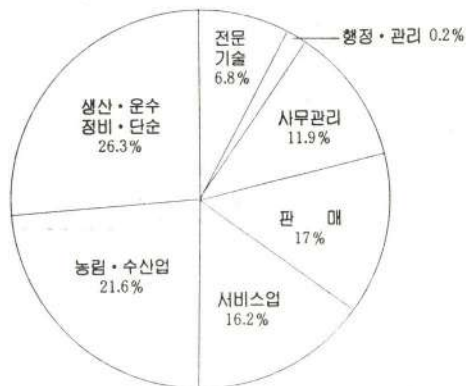




일하는 여성의  
 대부분은 힘든  
 농사일이나  
 단순하고 고된,  
 그리고  
 임금 수입이  
 형편없이  
 적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금 생산직, 타이피스트나 경리같은 단순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표 2) 여성 경제활동 인구



그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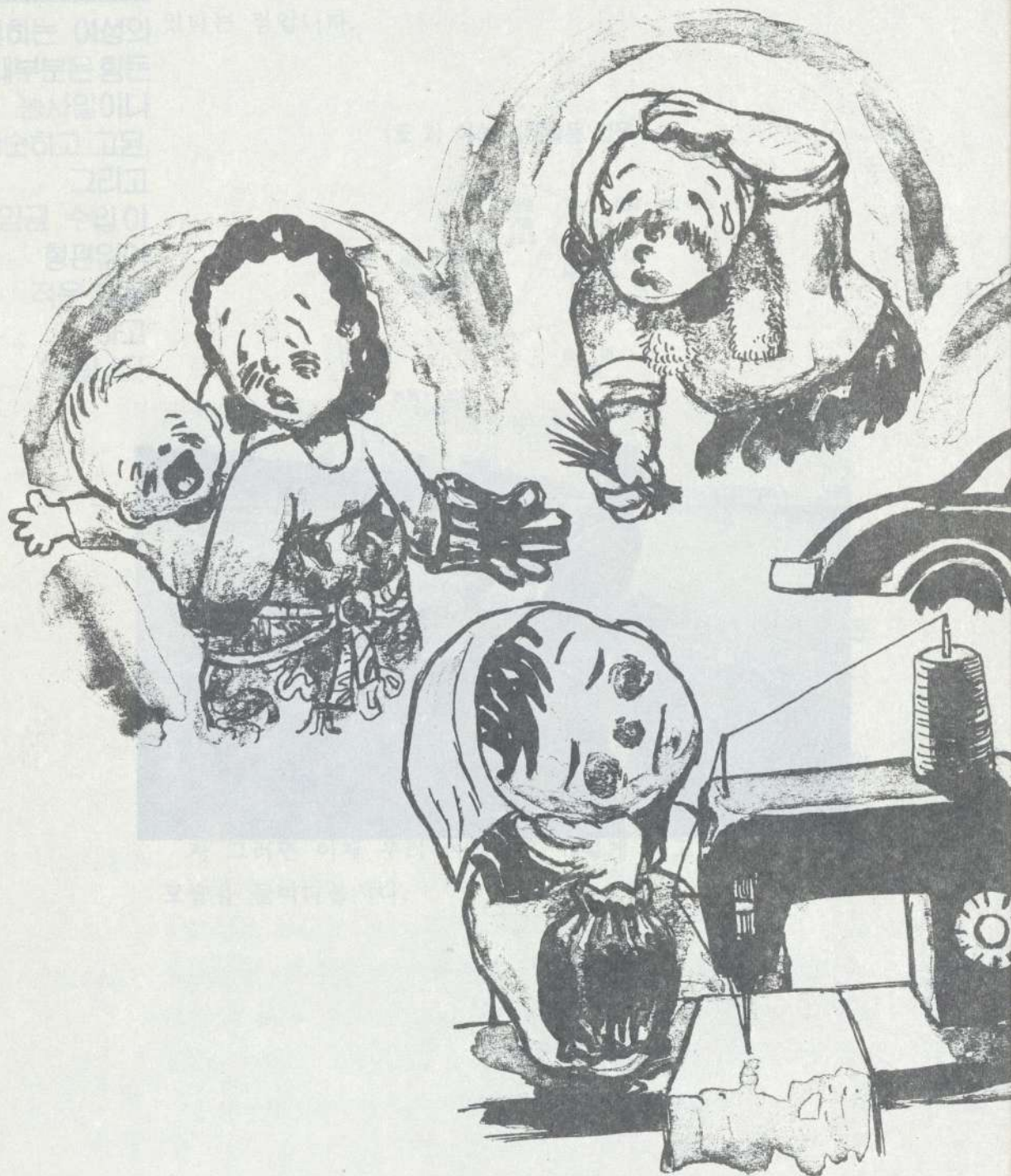
우리가 여성이라는 점, 그리고 대부분이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하는 가사노동과 단순하며 힘겨운, 그러면서도 수입이나  
 임금이 형편없이 적은 사회적 노동을 한다는 점.

이것이 바로 우리 여성의 공통점이고, 우리의 고단한 삶의  
 원인을 살펴보는 출발점 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성들은 어떻게 살고있나 그 구체적  
 모습을 들여다봅시다.



금 정월과 양력 2월 1일은  
입히는 여성이  
대부분은 영혼  
놓아달라나  
단순하고 고요  
그리고  
일과 수입이  
행복



## 2. 여성 그 고단한 삶

우리 세 식구가 아프지 않고  
살수만 있다면  
결혼이 죄는 아닐텐데  
임금없는 노동자 내 직업은 머느리  
부모가 빈민이면 자식도 빈민?  
강간 당하고 불구자 되고  
나는 노는 사람인가?



## 우리 세 식구 아프지 않고 빚 없이 살 수만 있다면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온 나는 여자용 바지를 만드는 공장에서 시다 일을 2년간 해서 미싱사가 되었고 결혼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동생들 학비 보태주느라 막상 결혼할 때는 모아 놓은 돈이 없어 맞벌이를 하기로 했다. 전세를 얻을 때까지는 지긋지긋해도 일을 하자고 마음먹고 손에서 일을놓아 본 적이 없다.

우리 집은 구로공단 근처이기 때문에 쉽게 취직을 할 수 있었고 공단에는 “주부님의 일손을 기다립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을 정도로 아줌마들도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가 있다. 공단이라 보수가 적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오랜 동안의 경력이 있는데도 같은 공정의 아가씨들보다 일당이 적어 속상했지만 식당이나 파출부보다는 꾸준하고 계획적일 것 같아 그냥 다닌다. 연장근로 때는 탁아소에 맡긴 섭이 때문에 주임한테 연장을 빼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하지만 “아줌마 빼주면 누구는 보내주고 누구를 일 시킨다고 불만이 많아 어렵다”고 거절할 땐 혼자 덜렁 남아 기다릴 섭이가 생각 나서 몰래 빠져 나오기도 몇 번 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처지의 엄마들이 탁아소가 파할 시간이 되면 우리 아이를 함께 데려다가 봐줘서 조금은 안심이 되지만 그럴 때마다 섭이 아빠만 원망하게 된다. 그렇지만 섭이 아빠만큼 확실한 사람도 없는 것 같다. 맞벌이 부부 경우 남편이 놀음을 한다거나, 술을 많이 먹고 들어와 손찌검을 하기도 한데 그래도 섭이 아빠

는 먼저 집에 오면 밥이라도 해 놓으니 한편 위안이 되기도 한다. 세 식구 아프지 말고 건강하기만 하면 빚지고는 살지 않을 텐데…… 절약 절약해서 적금을 들지만 1년 되기가 무섭게 방값을 올려 달라는 주인집에 주고 나면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제 섭이도 유치원에 곧 가게 되는데 유치원 끝나고 오면 누군가 봐줘야 할 텐데 참말 걱정이다. (연홍물산 이은희)



## 결혼이 죄는 아닐텐데

저는 작년 대한제분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대부분 4, 50대 아주머니들이었어요. 밀가루가 뽀얗게 날아들고 퇴근시간만 되면 머리가 하얗고 설탕이 엉겨붙어 끈끈하니 아가씨들이 들어왔다가는 한나절도 못하고 도망갈 거예요. 12시간 노동을 하고 일당은 5천5백원, 하루 일을 하면 저녁에 돈을 줘요. 당연히 수당, 휴가 이렇게 없고 퇴직금도 없지만, 회사에서 누누히 “아줌마들, 여기는 퇴직금도 없다. 일당 받는 길로 끝이다” 하고 교육시키기 때문에 1년을 근무 하고도 퇴직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어떻게 하면 잘 보여서 원공이 될 수 있을까. -그곳에서 5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일해 관리자들에게 잘 보여 원공이 된 아줌마가 한 분 계셨습니다.- 하는 생각뿐이에요.

한일방직이라는 곳에 잠깐 있는 적이 있는데 이곳은 식당에서 아줌마들, 아가씨들 따로 앉혀놓고 면접을 봐요. 아줌마들한테는 굉장히 까다로워서 한 사람씩 사내 의료실에 불러내 배꼽수술을 했는지 확인서를 받아오게 해요. 또 이렇게 다니다가 임신이 되면 퇴사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우지요. (대한제분, 정남희)

## 임금 없는 노동자-내 직업은 며느리

나도 시집오기 전에는 부모님 사랑받고 집안일만 겨우 돕다가 고모네 집안 어른의 중매로 이 집에 시집오게 되었다.



신랑 얼굴도 잘 기억하지 못한 채 얼떨결에 혼례 치르고, 그 날 이래 지금까지 줄줄이 일만 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다.

처음에는 새댁이라고 시부모님도 일을 시키시지 않았지만, 일손 하나라도 귀한 시절이라 새댁 소리가 채 떨어지기도 전에 밭에 나가 김을 맬 수 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낫선 시집 식구들 사이에서 친정 생각도 많이 나 밤마다 울기도 했지만, 자식도 생겨 바쁜 세월이 올 시간조차 없었다.

시집살이 시키는 시부모도 많다고 하지만, 워낙 쪼들리는 살림이라 시어머니와 함께 밭일도 하고, 또 나 혼자 밭에 가면 셋거리도 여다주기도 하여 정이 들기도 들었다. 그러나 시집 형제자매들이 4남매나 되어 내팽개치는 빨래가 며칠씩 쌓이고, 곧이어 내 자식들까지 자라기 시작하니깐 집안일이 끝도 없이 많았다. 일 때문에 애 낳고 삼칠일도 제대로 쉬지 못했을 정도이다.

집안 어른과 함께 사는 처지에 남편과도 덤덤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다. 어떤 때는 이 모든 고생이 바로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되어 원망스러웠고 이런 집에 시집 보낸 친정 부모님도 원망스럽기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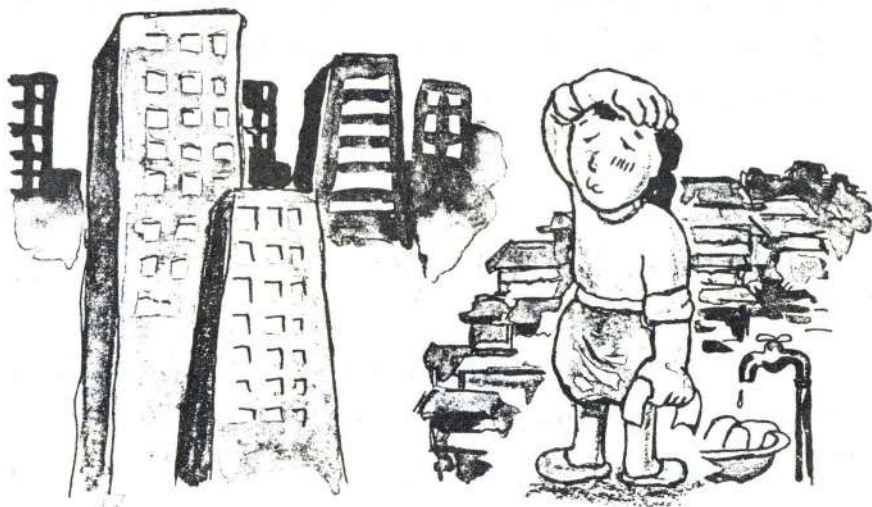
우리 아이들은 모두 이 고생을 하지 말아야 할 텐데..... 공부하라고 시간 있을 때마다 소리치지만 학교 가는 길이 워낙 멀고, 매일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니 언제 공부를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촌에서 나같이 고생하는 것도 원통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공부를 시켜야겠다. 정말 시집온 이래 집안 일, 농사일만 하면서 키운 자식들이 나보다도 좀더 나은 생활을 촌에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 (농민여성)

## 부모가 빈민이면 자식도 빈민?

빈민지역 여성들의 삶은 한마디로 고달프다. 남편이 벌어오는 돈만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부업을 한다. 십정동의 한 아줌마는 꽃잎을 철사에다 대고서 테이프로 감는데 1개당 1원씩을 받는다. 아침에 설거지와 빨래를 끝내고 11시 넘어서부터 저녁 잠자리 들기 바로 직전까지 틈나는 대로 꼬박 앉아서 하는데도 하루 2,000개밖에 감지 못한다. 손가락은 허물이 벗겨져 지문은 모두 지워졌고, 딱딱한 군살만이 박혀 있다. 하루종일 구부려서 일하니 허리가 아프고 나중에는 눈까지 침침하다. 그렇게 일해봐야 한달 4~5만원의 돈밖에 벌지 못한다. 이 아줌마 외에도 대부분의 아줌마들은 비슷한 단가의 부업들을 한다. 구슬 꿴기, 목걸이 조립, 앨범

링끼우기, 췌타짜기 등을 하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은 도라지 까기, 밤까기 등을 하고 있다. 미싱기술이 있는 사람은 미싱한 대를 방에 들여놓고 부업을 하는데, 솜인형이나 솜사시 작업을 할 때면 집안은 온통 먼지투성이가 되고 그 속에서 아이들은 솜과 같이 뒹굴면서 논다. 그나마 학생이 있는 집에서의 아이들은 미싱소리가 시끄러워 공부조차 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빈민지역의 여성들은 가장 어려운 조건 속에서 최하의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빈민지역 여성들의 고달픔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고지대에 사는 여성들은 꼭두새벽부터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100-200미터의 언덕 아래로 들어 날라야 한다. 종종, 우는 아이를 등에 업고 쓰레기통을 머리에 이고 뛰어 나오다가 온몸에 움푹 먼지를 뒤집어 쓰는 사람도 있다. 게다가 상수도 시설이 나빠서 빨래는 늘 밤 12시가 넘어야 물을 받아서 한다. 이 사회의 최말단에 사는 빈민여성들은 아무런 사회적 혜택도 받지 못하면서 2중 3중의 노동에 시달려야 하



는 것이다.

빈민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은 아이들의 양육 문제이다. 쪼달리는 살림에 돈벌이로 정신이 없다 보면 아이들은 그대로 거리에 방치된다. 거리에 내몰린 아이들은 군것질과 오락실을 전전하며 간혹 나쁜 길로 빠지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주들의 악랄한 돈벌이도 있다. 재작년 십정동 지역에서는 아이들의 ‘침빨기’라는 부업이 있었다. 깡통에다 침을 빨어주고 깡통당 200원씩 받는 것이다. 이 ‘침’은 동아제약 등의 제약회사에서 노인의 백내장, 노화방지의 원료로 쓰이는데 이 약은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한다. 그래서 이런 가난한 지역에서 침을 수거해 가는 것이다. 아이들은 침을 빨아서 번 돈으로 다시 군것질과 전자오락을 하며, 억지로 침을 빨다가 쓰러지는 아이들도 있었다.

이렇게 자라는 빈민지역의 아이들은 가정형편상 거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다. 부모들의 유일한 희망인 자식들은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다시 빈민지역의 노동자가 되어 살아가게 된다. (빈민지역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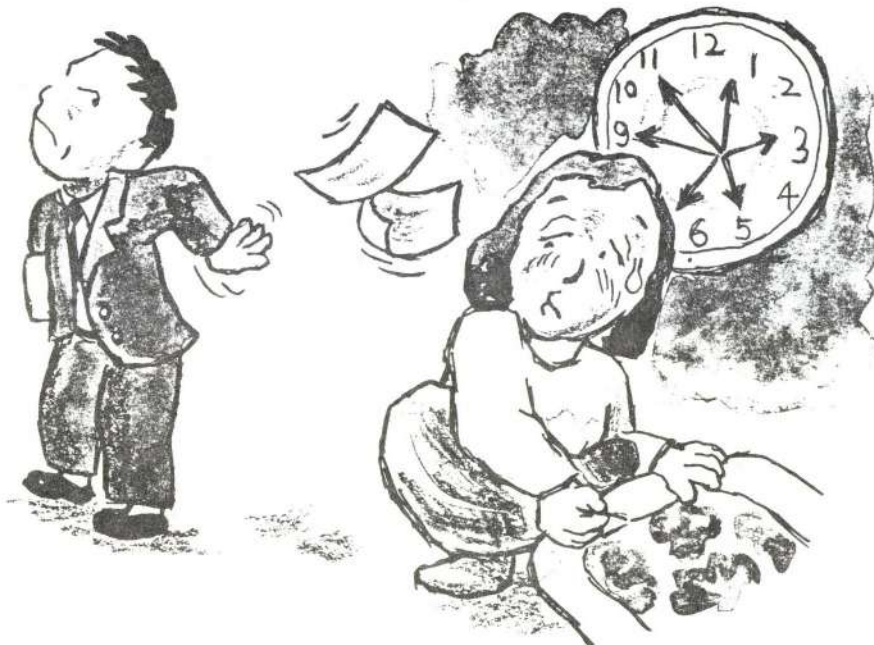
### 강간당하고, 불구자가 되고

회사에 다니는 26세 된 아무개양은 여름철에 창문을 열어 놓고 자다가 새벽 2~3시 경에 강도가 들어와 칼을 들고 위협하여 강간을 당했다. 세를 들어 살고 있는 주부가 집주인

남자에게 강간을 당한 사례도 있다. 병약한 주부는 오후 4시 경에 방으로 침입한 집주인 남자에게 저항할 힘도 없이 완력에 의해 입을 틀어막힌 채 거의 실신상태에서 강간을 당했다. 구로공단 봉제공장에 다니는 25살 난 여성노동자는 치한의 강간을 피하려고 여관 2층에서 뛰어내려 허리가 부러져 실신상태에 있는데 다시 끌고 올라가 강간을 하여 전치 6개월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중이다. 몇번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장애자로 살아가야 한다고 한다. (베를 '88. 10)

### 나는 노는 사람인가?

나는 요즘 이유 없는(?)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집안에 널려진 빨래를 보아도, 반찬거리를 사러 시장을 가도, 통 의



욕이 없는 것이다. 남들은 아들 딸 하나씩 낳아 알토란같이 잘 길렀다고 하지만 나는 요즘 그러한 것들이 매양 허무하다고 생각한다. 오늘도 남편은 회사로 출근하면서 나에게 아파트 분양용 인감증명서를 떼어 놓으라고 했다. 나는 오늘 아침 이불호청을 갈아끼우려고 모두 뜯어 놓은 데다가 오후에는 시댁 조카의 결혼식에도 참석해야 했기 때문에 꼭 오늘 해야 하느냐고 대답했다. 그러나 남편은 화내며 물었다. “그럼 바쁜 내가 출근하지 말고 동사무소에 가야 해? 집에서 맨날 놀면서 뭐하는 거야?”

나는 무거운 이불호청을 빨래줄에 널면서 다시 한 번 자신에게 되물었다. “놀다니…… 이 이불빨래가 놀이로 보인단 말인가?” (주부, 김아무개)





### 3. 여성의 삶과 정치

여성노동자의 문제는 정치와 무관한가?

여성농민이 내뿜는 한숨의 뿌리

인신매매와 강간은 왜 벌어질까요?

우리 아이들이 병들어 가는 이유

우리 생활 모두를 정치가 결정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  
가장먼저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10월  
그리움

많은 남성들은 여성들의 팔자가 참 편할 거라고 합니다. 남편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집에 앉아 살림만 하니 얼마나 편할 거냐는 겁니다. 만원버스나 지하철에 매달려 출퇴근하는 고통도 없고, 회사에서 상사 눈치보고, 동료간에 경쟁하느라 생기는 스트레스도 없고, 업무 때문에 억지로 먹는 술자리도 없고, 집에 편히 앉아 애 키우고 살림하는데, 복에 겨워 남편 바가지나 굶고 그런다는 거죠.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남편이 가져다 주는 알뜰한 월급봉투로 살림을 하자면 가계부를 쓰고, 또 써도 골치가 지끈거립니다. 거기다 집안일은 또 얼마나 끝이 없이 많고 고되고 잔신경을 쓰게 만듭니까? 청소에 빨래, 밥하기, 반찬만들기, 설거지, 철마다 대청소…… 그 밖에 친척 경조사챙기기, 남편 뒷바라지, 아이들 숙제 챙기기, 돌보기, 좀더 크면 입시경쟁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과외라도 시켜야죠, 학교에도 찾아가봐야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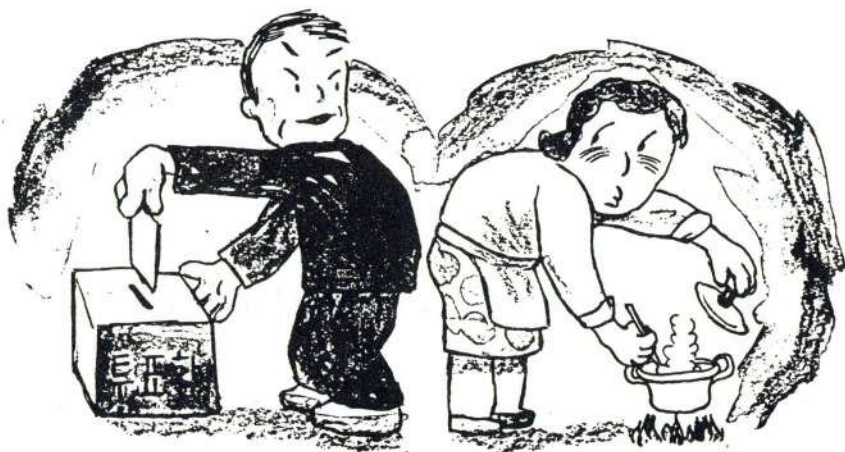
뿐만 아닙니다

이제 여성들도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6.5%로, 전체 여성의 절반가량이 어떠한 형태의 노동이든가 사회적 노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여성들도 참 골치 썩일 일이 많습니다. 소소한 집안일부터 자녀교육, 물가문제, 내 집마련대책, 그리고 요즘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폭력으로부터 나와 내 자녀 지키기까지 우리가 신경쓰고 관심갖는 일은 두루두루 많고 넓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여성의 관심은 대부분 자신과 직접적으로

**여성들도  
참 골치 아픈  
일이  
많습니다.**



관련된 일, 자기 가정의 일에만 국한되어 왔습니다. 사회나 정치문제에는 적극적인 관심을 갖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특히 정치란 자신의 삶과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정치란 똑똑하거나 잘난사람, 돈있고 뻥있는 사람, 혹은 권력이나 명예욕, 출세주의에 사로잡힌 남성들이나 하는 것이라 생각해왔습니다. 혹은 가끔씩 정치에 관심을 가진다 해도 그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잔치'에 잘차렸느니 못차렸느니 하며 그저 한마디 거드는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치란 무엇일까요? 정치란 정말 잘난 사람들, 출세주의자들만의 것일까요? 우리 삶의 현장과 동떨어진 어느 먼 곳에서 우리의 일상생활과 무관하게 벌어지는 무언가 어렵고 색다른 것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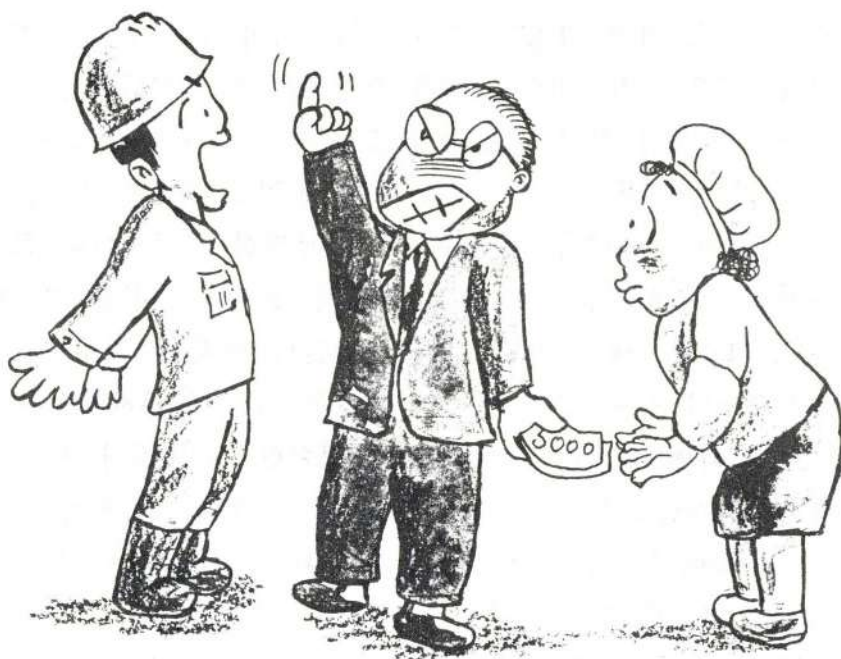
몇가지만 예를 들어 알아보시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가정내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 여성노동자의 문제는 정치와 무관한가?

대부분의 여성들은 제조업 부문의 저임금업종, 직능이 낮은 단순 미숙련직에 취업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결혼을 하면 그만두어야 하는게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기혼여성의 재취업은 미혼여성보다 훨씬 어려운 조건 속에서 마치 특혜를 받듯이 이루어집니다.

세계 최고의 장시간 노동(남성노동자의 월평균 272.9시간을 초과하는 월 288.6시간)에 시달리면서도 평균임금은 기본급 12만원 선으로 남성의 58.6%정도이고,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여러가지 직업병과 산업재해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직업병은 진폐증, 소음성 난청, 중금속중독, 백혈병 등의 정도여서 대다수 여성노동자가 겪게 되는 위장병, 두통, 요통, 피부병, 관절염, 기관지염, 시력장애 등등의 직업병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인정받기가 매우 힘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를 구실로 해고되기가 일쑤입니다.

사무직 여성노동자도 비슷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여성이라고 불리우는 이들의 일이란 대체로 3C(커피, 담배, 복사)업무를 비롯한 보조업무가 95%를 차지하며 여성업무=보조업무=저임금이라는 등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남성에 비해 갖가지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으며 이외 조기정년제, 결혼퇴직제가 관례로 정착되어 있어 여성의 '평생노동권'이 보장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성보호를 위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산전산후 휴가, 육아휴직, 수유시간, 자녀병가 등-를 제대로 찾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여성노동자의 고통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외국이나 은행에서 돈을 빌어 상품을 만들고 이 상품을 다시 해외에 수출해 돈을 버는데, 기업들은 빚도 갚아야지 부동산투기, 주식투자도 해야지 정치자금도 대야지, 돈 쓸곳이 많기 때문에 이윤을 많이 남겨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임금을 쥐꼬리만큼 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노동자의 임금이 더욱 적은 것은 여성은 '남성 보조적인' 사람들이고 한 집안의 생계는 남자가 책임지기 때문에 여성은 집안살림에 좀 보태기만 하면 되는 '가계 보조적'인 노동자이다. 따라서 남성보다

임금을 적게 주어도 된다는 논리를 펴면서 결국 전체노동자의 임금을 저임금으로 묶어두려는 술책때문입니다.

정부(정치권력)는 또한 어떠합니까? 힘없고 가난한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폈을까요? 오히려 정부는 이 사장들의 편에서서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등 저임금정책을 주도하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생존권투쟁을 불순분자의 행동으로 몰아 탄압해 왔습니다. 기존의 정당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로는 서민들의 정당이니,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위한 정치를 펴느니 하면서도 막상 노동자들이 투쟁할 때는 ‘노동자의 투쟁이 과격하니 자제해야 한다’고 하여, 결국 공권력이나 백골단이 여성노동자를 몽둥이와 군화발로 짓밟는 것을 묵인하였습니다.

결국 사장들의 이익만을 옹호하는 국가권력, 노동자의 삶을 진정으로 걱정하지 않는 정당, 이들이 펼치는 ‘정치’가 우리 여성노동자의 삶을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 여성농민이 내뿜는 한숨의 뿌리

여성농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여성은 거의 다 농사일과 집안일을 함께 합니다. 여성농민이 일하는 노동시간을 계산해 놓은 것을 보면 1983년 농번기에 농가주부의 농업시간은 8시간 54분이고 가사노동시간은 4시간 29분이었습니다.(농촌진흥청 조사) 또 다른 조사에서는 1988년에 모내기철 여성농민의 노동시간은 평균 15시간이었습니다.(순창 농민상담소 조사)

이렇듯 허리 한번 못 편채 뼈빠지게 일 해 보았자 돌아오는 것은 늘어나는 빚 뿐입니다.(우리나라 농가의 평균빚은

1988년 현재 313만원 입니다.) 남편은 농약에 중독되고, 딸은 돈번다고 도시로 나가고, (농민의 딸들은 도시로 가 무엇을 하게 될까요?) 아들은 서른이 넘도록 장가를 못가는 게 요즘 농촌의 현실이며 여성농민의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우리 농가의 대표적인 농사인 쌀농사의 경우를 봅시다. 쌀값은 쌀을 생산하는 농민이 정하지 못하고 정부가 결정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정하는 쌀값(정부수매가)이라는게 생산비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앞서도 본 것처럼 도시 노동자의 임금을 적게 주기위해서는 노동자가 먹고 사는 쌀값이 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공장은 커지고 사장은 돈을 벌었지만, 농촌경제는 파탄해지고 농가는 가난에 빠졌으며, 도시노동자 역시 저임금 속에서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80년대 들어서 정부는 한편으로 농가에 복합영농을 권장해서 축산, 비닐하우스 농업, 과수 등을 권장하고 동시에 쇠고기, 담배 등 농산물수입을 해왔기 때문에 80년대 이후에는 소값폭락, 고추값폭락 등의 사태가 해마다 일어났고 농가는 빚더미 속에 파묻히게 된 것입니다.정부의 복합영농정책에 따라 농협에서 빚을 내 소를 사서 열심히 키웠지만 정부가 쇠고기를 수입하도록 했기 때문에 어느날 소값은 개값으로 폭락해 버렸습니다. 정부의 권장대로 포도를 심었던 농가는 포도주 수입으로 포도가격이 폭락해 빚만 남게 되었습니다. 무슨 농사를 지어야 할 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농가들이 한해는 고추농사를 지어 빚지고 다음해에는 참외농사로 빚을 지는 등 빚더미에 올라앉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비닐하우스 농업이나 축산을 하면 여자들의 일이 무척 많아집니다. 그러나 우리 여성농민들은 힘든 일 마다않고 죽도록 일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돌아오는 것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 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부의 저곡가정책, 수입개방정책은 그렇지 않아도 농민에게 비싼 값으로 농약이며 농기구를 팔아 재미를 보는 재벌들의 배만 더욱더 불러주었을 뿐, 농민에게는 빚더미와 병고, 죽음만을 안겨다 준 것입니다.

## 인신매매와 강간은 왜 벌어 질까요?

이제는 여성이면 직업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낮길, 밤길을 마음놓고 다닐 수 가 없습니다. 붕고차 옆을 지나칠 때면 인신매매를 당할까 공포스럽고, 외진 곳에서 남자와 마주치기라도 하면 납치, 강간의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여자아이들은 놀이터나 유치원조차 마음놓고 보내지를 못합니다.

더우기 우리사회에는 약 150만명에 달하는 여성들이 자신의 성을 팔아 생활하는 비인간적 삶을 사회적으로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여성의 성은, 신성하고 고결한 성은 무방비 상태로 폭력앞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은 이미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극소수의 정신나간 남자와 품행이 단정치 못한 여성 사이에서만 우연적으로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는 70년대 이후 불균형적인, 팽창주의적 경제정책에 의해 빈부의 격차가 극도로 심해졌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속에서 가진자들은 아무노력도 없이 부동산투기 등으로 돈을 벌며 흥청망청 쉽게 쓰는 사회환경 속에서 향락산업은 무한히 비대해져 왔습니다. 룸살롱, 카페, 요정, 안마시술소, 사우나, 퇴폐이발소, 터키탕, 러브호텔 등의 향락산업은 오늘날 전국에 45만개나 되며, 1000원에서부터 고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일부지역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널려 있으며 농촌, 주택가까지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 걸쳐 산재해 있는 약 40여군데의 미군기지는

퇴폐문화를 조장하고 매춘여성을 양성하는 본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자본가들은 이윤추구를 위해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엄청난 양의 광고를 TV나 신문, 잡지에 쏟아 붓고 있습니다. 또한 TV 드라마, 영화, 비디오, 잡지, 만화 등 온갖 곳에서 여성의 성이 상품화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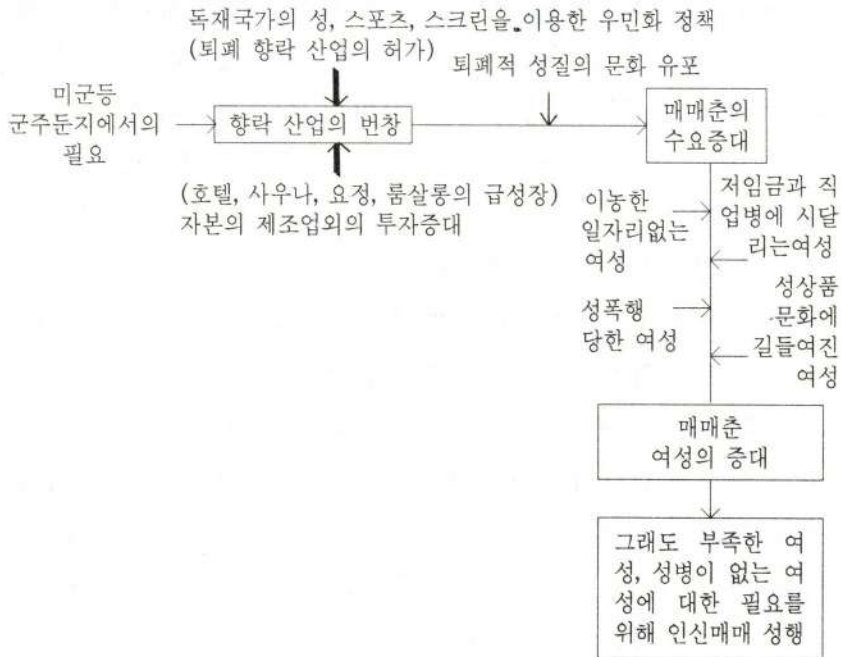
이런 환경 속에서 여성의 성은 사고, 팔고, 훔치고, 빼앗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환경의 주범은 바로 누대에 걸쳐왔던 군사독재권력입니다.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빈부격차와 상대적 박탈감을 증대시킨 것도 이들이고, 외화획득이라는 명분으로 기생관광을 주도해온 것도 이들이고, 국민대중의 비판의식을 무디게하여 독재권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소위 국민대중의 우민화정책인 '3S정책-스포츠, 스크린, 섹스'을 펼쳐 사회를 온통 유흥분위기로 조장시킨것도 이들입니다.

현재의 정치권력이 민주화시위나 집회에는 엄청난 인원과 장비를 동원하여 사전원천봉쇄를 하면서도 많은 여고생들이 납치당해 사창가에 팔려가고 대낮에 떼강도가 장보는 주부를 강간하고 달아나도 전경차는 커녕 골목에 가로등 하나 다는 일에도 인색한 이유는 바로 이때문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저임금에 시달리거나 그나마의 일자리도 부족한 여성들은 자신의 성을 생존수단화하는 매춘으로 내몰려가는 것이며, 향락산업에 공급되기위해 여성들은 인신매매당하는 것이며, 그밖의 갖가지 유형의 강간과 성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 매매춘이 늘어난 사회적 이유



그렇습니다.

이렇듯 여성이 겪는 강간이나 인신매매, 성을 팔아 생활하는 비참한 삶은 정치와 무관하게 단지 몇몇 남자, 여자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치권력이 누구의 이익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하려하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정책을 펴는가 하는 정치권력의 성격, 정치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 우리 아이들이 병들어 가는 이유

어머니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자녀교육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제1의 교육열을 지닌 나라라고들 합니다. 자신의 세대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를 통해 이루고 싶어하며 자나깨나 오로지 자식에 매달려 자식을 인생의 희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어머니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금이야 옥이야 키운 자식들이 청소년이 되면서 부모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길 가는 소녀들을 납치하여 강간하는가 하면, 본드 마약 히로뽕으로 퇴폐적인 환각을 추구하고, 돈을 구하기 위해 사람을 마구 찌르거나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청소년, 또 성적과 입시공포에 짓눌려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학생들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변고들입니까? 어째서 이렇게 가슴 떨리는 일들이 지척에서 빈발하고 내 자식에게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자녀에 대한 우리 어머니들의 관심과 사랑이 부족한 때문일까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병이 들고 죽음으로까지 몰려가고 있는 현실이 단지 부모와 자식만의 탓일까요?

아닙니다. 갈수록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사회적 불평등의 구조와 지옥이라 불리우는 입시경쟁, 잘못된 교육내용등 때문입니다. 일류대학을 나와야 돈 벌고 출세하고 사람구실을 할 수 있는 사회 속에서 학교는 입시를 치루기 위한 전쟁터가 된지 이미 오래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한술 더 떠 학력저하를 구실로 고등학교 입시까지 부활하겠다고하니 한참 즐겁고 신나게 자라야 할 우리의 자녀들을 이제 14살 때부터 일치감치 이런 전쟁터에 내보내야 할 판국입니다.

우리 생활 모두를 정치가 결정합니다

위에서 본대로 우리의 생활속에서 매일매일 부딪히는 문제, 어려운 문제, 고통받는 문제들, 폐강도, 마약, 인신매매, 강간 등 온갖 흉악한 사회범죄, 교통사고, 과열 입시경쟁, 취업난, 치솟는 물가와 전세값, 주택난, 공해, 핵발전소, 핵무기들, 이 중 어느것 하나도 정치문제와 연관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란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의 구석구석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들을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국가권력의 차원에서 잘 다스리고 해결하는 것, 이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국가권력이 법과 제도를 통해, 교육과 윤리를 통해, 환경과 풍토조성을 통해 모든 국민의 민생과 민권을 잘 보호하고 지켜냄으로써 우리의 삶의 조건을 끊임없이 질적으로 높여낼 때 우리는 정치를 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치란  
우리 생활  
깊숙히 영향을  
미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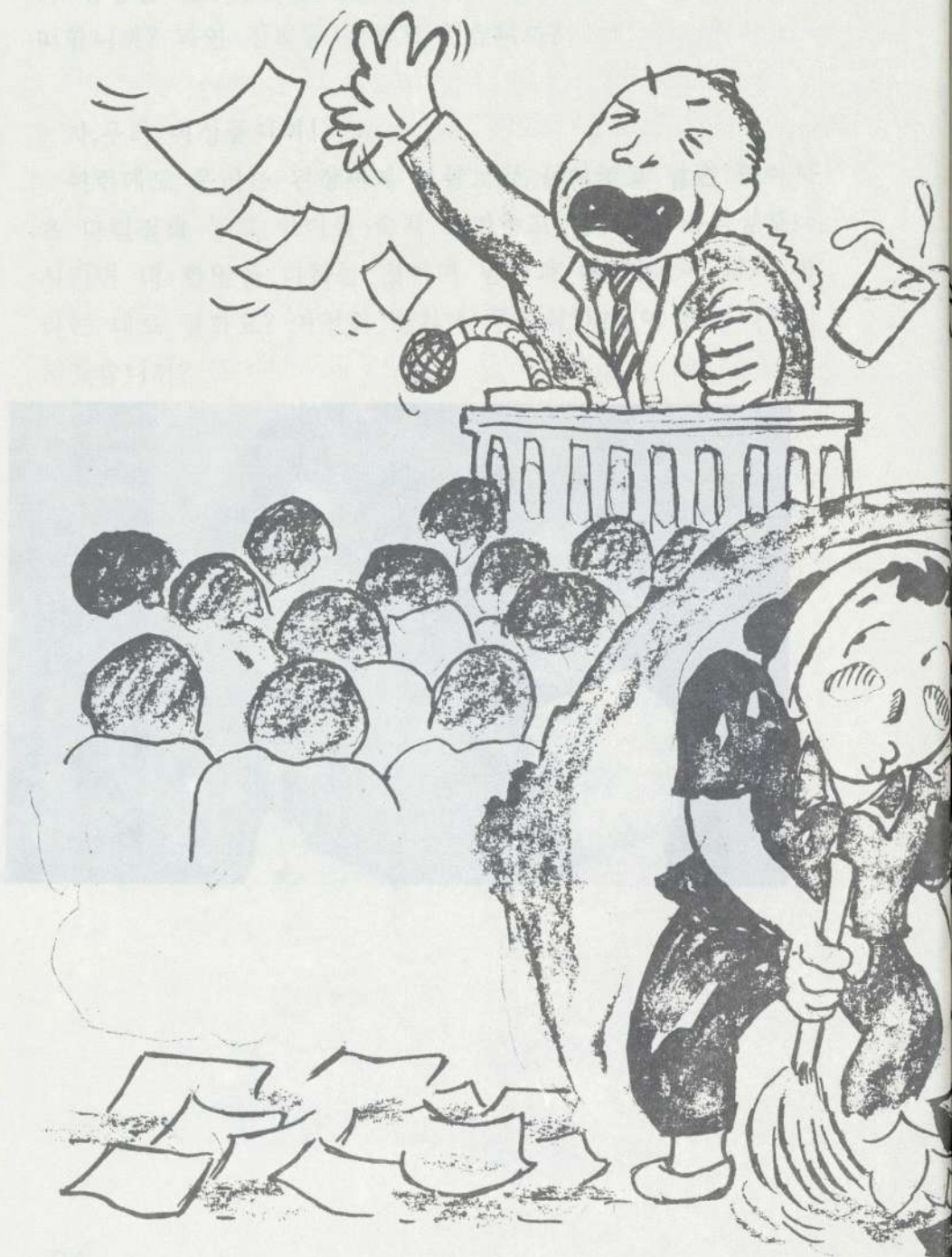
그런데 지금의 정치권력은 어떠합니까? 올바른 경로를 밟아 형성된 민주권력입니까? 또 기존의 정당과 정치인들은 어떠합니까? 과연 정치를 잘하고 있습니까?

자,우리 여성들이여!

이런데도 우리는 된장찌게 보글보글 끓여놓고 남편 와이셔츠 다림질해 놓고 아이들 숙제 챙겨주고 돈 들여 과외공부나 시키면 내 할일을 다하는 것이며 남편과 내 자식이 내가 바라는 대로 될까요? 여전히 정치에 무관심한게 여성의 미덕이 되겠습니까?

그럼 다음장에서는 여성이 왜 정치에 무관심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과 정치에서 소외되어 있는 현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4. 여성은 정치의 들러리? 구경꾼

그런데 왜 여성은 정치에  
무관심하게 되었나?

정치에서 철저히 소외된 여성



## 그런데 왜 여성은 정치에 무관심하게 되었나?

그러면 왜 우리 여성들은 정치에 무관심하게 되었고, 또 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살펴봅시다.

**가부장제라는  
관습  
때문입니다.**

첫째, 우리는 예로부터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이 하늘을 잘 받들고 섬기며 사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는 유교적 전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1부1처제라 하더라도 그것은 여성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었고 남자들은 첩을 얻거나 기생방을 출입하는 것을 당연시 해왔습니다. 여자들은 이에 항의할 수 없었습니다. 소위 칠거지악에 속하기 때문이지요. 그 뿐만 아닙니다. 여자들은 남자들이 하는 바깥일에 관심을 가져서도 간섭을 해서도 안됐습니다. 남자아이를 못낳는 여자는 쫓겨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을 가부장제 문화, 가부장제 전통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가부장제 문화, 가부장제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면면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정되기 이전까지의 가족법이 그 구체적 증거이며, 태어나지도 못한 채 태아상태에서 죽어야 하는 수많은 여아의 현실이 바로 그 생생한 증거입니다. 남자=바깥일, 여자=집안일 일라는 등식이 사회통념화된 것도 바로 이 가부장제라는 관습때문인 것입니다.

**성차별  
교육  
때문입니다.**

둘째,우리가 받는 성차별 교육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는 성차별 교육은 학교에 들어가기 전의 유아의 그림책에서도 나타납니다. 조사된 그림책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여성이 직업을 가지지 않았고, 거의 모두가 집안에서 봉사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남편과 자녀를 보살피고 있을 뿐임



니다. 이미 46%의 성인여성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현실이  
엄연한데도 그림책에 나오는 여성은 오로지 어머니나 결혼한  
아내뿐이라는 것입니다.

국민학교, 중·고등학교에 가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가,  
기업가, 기술자, 의사, 판사, 과학자는 모두 남성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여성은 아이기르는 모습, 집안일하는 모습만이 그  
려져 있으며 직업여성 역시 '여성다운 직업'—예컨대 간호사,  
교사, 비서 등으로만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정, 가사라  
는 교과과목은 여학생만 배우는 반면 기술, 상업은 남학생만  
배웁니다. 교복자율화이후 모든 남·녀 학생들이 활동하기가

편한 바지를 입고 다니는 데 어떤 여학교에서는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부러 ‘치마입는 날’까지 정해서 보이지 않는 쇠사슬로 자유로움을 묶어버리려 하기조차 합니다.

‘여자는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매스컴의  
영향  
때문입니다.



세째, 온갖 매스컴과 여성잡지 등이 왜곡된 여성상을 재생산 해 내기 때문입니다.

‘남편 사랑은요, 가끔씩 확인해야 해요’와 같은 광고, 오로지 남성에게 의해 그 행복과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듯한 TV드라마 속의 여성상, 남성에게 예뻐보이고 마음에 들도록 하는 비법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여성잡지들이 왜곡된 여성상을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독재권력이 위와 같은 관습, 성차별 교육, 각종 이데올로기를 총동원하여 여성의 정치적 무관심을 조장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독재권력은 재벌과 뗄 수가 없습니다. 독재권력은 재벌에게 여러가지 특혜와 지원을 해주며 재벌은 거기에서 얻은 이익의 일부를 음성적인 정치자금으로 정권에 되돌려줌으로써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강도 사건이 나도 늦장을 부리는 경찰이 노동자들의 사소한 임금인상 요구 파업에도 왜 수천 명의 경찰을 투입시키는지 생각해 본다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한 공장에서 임금 인상 요구한다고 해서 손해를 보는 것은 사장들인데 왜 경찰이 국가 안보적 위기 운운하면서 달려가는 것일까요? 바로 사장들의 안위가 정권의 안위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진 자, 힘 있는 자들만을 위한 정치가 ‘아무런 걸림돌 없이’ ‘다른사람의 눈치보지 않고’ 계속 유지되려면 가능한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하여 그저 잠잠하게 있어 주어야만 그들에게 유리합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가장 억압받고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는 여성들이 정치적으로 자각하여 ‘여성노동자의 임금을 올려라’ ‘탁아소를 많이 마련하라’ ‘주부의 재취업을 위한 기술교육을 제공하라’ ‘직장내 차별을 없애는 법을 만들라’ ‘가족법을 고쳐라’ ‘임시제도를 없애라’……하고 떠들어대는 것이 그들에게 좋을리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한마디로 골치거리일 뿐입니다. 독재권력이 원하는 것은 여성이 철저히 정치적으로 무관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재권력은 여성의 관심을 오직 가정에만 묶어 두기 위해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효부상이나 으뜸주부상을 만들어내어 가정에 충실하는 것만이 여성이 지녀야 할 최고의 미덕인 양 선전합니다. 향

**바로  
독재권력이  
여성의 정치적  
무관심을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락산업과 매매춘행위를 제도적으로 근절하기는커녕 오히려 묵인, 방조함으로써 이들 서비스업체로부터는 세금 등을 통해 경제이득을 챙기는 한편 가정에 있는 아내의 관심을 남편의 외도 감시에 집중되게 합니다. 고교입시를 부활하여 어머니의 정신을 온통 아이들 성적에 빼앗기도록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고도의 여성우민화정책들입니다. 각종의 매스컴과 범람하는 여성잡지들도 대부분 이러한 정책에 편승하여 정치인의 혼맥이나 취미, 연예인의 사생활, 스캔들 따위를 흥미위주로 기사화하고 있으며 제일 옷 잘입는 정치인(베스트드레서)이 누굽네하고 떠들기도 합니다. 이렇듯 독재권력이 의도하고 조성하는 바에 따라 대부분의 언론과 잡지들은 여성이 생활로부터 받게 되는 압박감(스트레스)을 사치와 허영, 섹스문화 등으로 달래면서 갖가지 환상과 대리충족을 안



겨주려고 노력합니다. TV에 방영되는 드라마의 내용은 물론 상품광고조차도 여성을 분수에 넘치는 과소비문화로 몰아가고 있으며 보람있는 삶에 대한 여성들의 욕구와 정치적 관심을 다른 곳으로 유도함으로써 여성의 삶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 정치에서 철저히 소외된 여성

이렇듯 여성은 정치에 무관심하도록 키워져 왔기 때문에 정치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정치에 무관심하고 소외되었기 때문에 여성의 그 고단한 삶은 개선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이 정치에서 얼마나 소외되고 있는가, 이제 그 현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구, 토론하고 연구, 토론된 내용을 법과 제도로 입안하며 정치적으로 감시하는 기능을 지닌 국회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여성국회의원이 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아래 ( 표 1 ) 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13대 국회에서 여성의원은 전체 299명 중 6명으로 전체의 2.1%에 불과합니다. 이는 1987년도 유엔이 조사한 144국의 여성의원의 평균 점유율인 14.6%에도 훨씬 못 미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연맹조사에 응답한 67개 국가 중 1975년과 1985년 사이에 여성의원이 점차 감소추세를 보인 12개국 중 하나에 속

**여성은  
정치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299명 중  
여성은  
6명에  
불과합니다.

(표 1) 역대 한국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

|           | 국회의원총수 | 여성의원수 |     | 여성비율 |     |
|-----------|--------|-------|-----|------|-----|
|           |        | 총 수   | 지역구 | 총 수  | 지역구 |
| 제헌국회(48년) | 200    |       | 1   |      | 0.5 |
| 2대(50년)   | 210    |       | 2   |      | 1.0 |
| 3대(54년)   | 203    |       | 1   |      | 0.5 |
| 4대(60년)   | 333    | 1     | 1   |      | 0.4 |
| 5대(60년)   | 233    |       | 3   |      | 1.0 |
| 6대(63년)   | 175    | 2     | 1   | 1.1  | 0.8 |
| 7대(67년)   | 175    | 3     | 1   | 1.1  | 0.8 |
| 8대(71년)   | 204    | 5     | —   | 2.5  | 0   |
| 9대(73년)   | 219    | 10    | 2   | 4.6  | 1.4 |
| 10대(78년)  | 231    | 8     | 1   | 3.5  | 0.6 |
| 11대(81년)  | 276    | 9     | 1   | 2.9  | 1.1 |
| 12대(85년)  | 276    | 8     | 2   | 2.9  | 0.5 |
| 13대(88년)  | 299    | 6     |     | 2.1  | 0   |

자료 : 김현자.

더구나 현재의 여성국회의원 6명 중 지역구 출신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국민의 반이 여성인데, 국민에게 선출된 여성정치인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여성들의 문제가 특별히 정치문제화되고, 여성들의 권익을 옹호할 제도나 법이 만들어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저임금의 생산직종과 하위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고, 심지어는 몸을 파는 일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현실, 맞벌이부부가 아이 맡길 데가 없어 아이를 방에 가두고 문을 잠근 채 일을 나간 사이 아이들이 화재사고로 숨지는 현실, 대부분의 주부들이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으로 하루하루를 다람

(표 2) 여성의석 비율의 세계적 추세

|   |   |   | 단위: % |              |
|---|---|---|-------|--------------|
|   |   |   | 1975년 | 1987년        |
| 스 | 웨 | 덴 | 21.4  | 30.9         |
| 노 | 루 | 웨 | 15.5  | 34.4         |
| 네 | 덜 | 랜 | 9.3   | 19.3         |
| 덴 | 마 | 크 | 15.6  | 25.6         |
| 서 |   | 독 | 5.6   | 15.4         |
| 스 | 위 | 스 | 7.5   | 11           |
| 이 | 태 | 리 | 3.8   | 12.8         |
| 벨 | 지 | 옴 | 6.6   | 7.5          |
| 프 | 랑 | 스 | 1.6   | 6.4          |
| 영 |   | 국 | 4.2   | 6.3          |
| 미 |   | 국 | 3.6   | 5.3          |
| 한 |   | 국 | 5.5   | 2.1(3.4% 감소) |

자료: IPU자료, 1987년 78차대회, 방북.

취 체바퀴 돌듯 살면서 자신의 전문성이나 잠재능력을 사회를 위해 발휘하지 못하고 반복되는 일상생활에 묶여 있는 현실, 이런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현실을 혁파하기 위한 어떤 진지한 노력이 ‘정치의 장’인 국회에서 있어 왔습니까?

물론 최근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제정과 가족법개정 등의 작은 성과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현실에서는 잘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당하는 수많은 차별과 부당한 대우 등을 제거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여성들도 ‘정치화’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선거 때입니다. 국회에서 일하는 여성의 수도 지극히 적고

국회라는 곳이 여성들의 권익향상과는 별반 관계가 없는 곳 같은데도 이상하게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때만 되면 우리 여성들도 정치바람에 휘말립니다.

**남성후보들은  
여성의 표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원이 되기도 하고, 자기의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후보들의 정견발표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정치의 거센 바람이 부는 선거철조차도 우리 여성들의 대부분은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대접받지 못합니다. 통반장을 통해 행해지는 금품수수나 매표의 대상은 여성들입니다. 여성은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후보의 겉모양이나 소문에 따라, 혹은 남편이나 남이 하는 대로 그저 따라서 투표하는 세력으로 여겨지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바로 여성의 정치참여의 현주소입니다.



남성후보들은

여성의 표를

실수

했다고

생각합니다



## 5. 여성은 이제 정치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성들이 함께 뭉쳐야 합니다.

정치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여성의 정치 진출을 위한 제도를 만듭시다.

지방의회에 적극 진출합시다.

여성도 국회에 진출합시다.



그간 이땅의 정치는 오직 가진자들의 정치였습니다. 노동자·농민·도시서민 여성을 비롯하여 전 국민의 98%에 해당하는 민중의 의사와 참여가 배제된 채 오직 힘있는 자, 가진자들만을 위한 정치가 행해져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네 삶은 곳곳에서 멍들고 병들어, 가난과 비참함 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성들의 삶 역시 잘못된 사회, 잘못된 정치로 인해 황폐해가고 있습니다.

나와 내 부모, 내 남편, 내 자식, 우리가족, 우리이웃, 우리국민 모두가 진정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여성들은 이제 가정 안으로만 가두어진 관심을 사회로 정치로 넓혀야 합니다. 그리하여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힘을 모두 어 내, 여성을 억압함으로써 부패한 사회를 유지하고 부패한 사회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민주사회를 세워야 합니다.

여성이 잘못된 정치와 사회구조를 고치려는 노력은 크게 두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여성들이 함께 뭉쳐야 합니다.

하나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함께 모여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운동을 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기존의 여성단체나 민주단체에서 해왔던 일이기도 합니다.

가족내의 여성의 중요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 남아선호사상을 부채질 하던 법, 이혼할 때는 결혼 생활동안 열심히 모아온 재산을 그대로 둔 채 위자료만 겨우 받도록 되어 있고,

더구나 자녀에 대한 권리마저 남편이 갖게 되어 있던 법, 그래서 여성들로 하여금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경우도 이혼을 당할까 두려워 참고 또 참게만 만들던 가족법을 개정한 일, 사회적 노동을 하는 여성들이 모집, 채용, 승진, 승급, 해고에 이르기까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특별히 동일한 노동을 하는 경우 동일한 임금을 받도록 규정하며, 여성이 결혼한 후에도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1년을 허용하고 직장탁아소를 두도록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 등은 여성들의 단결과 여성단체의 헌신적 노력에 의해서 얻어낸 제도개선의 성과들입니다. 또한 85, 6년 당시 독재정권을 옹호하는 KBS의 시청료 거부운동이라든가, 단지 노조를 만들려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여성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어느 의류업체의 제품 불매운동 또 경찰에게 강간을 당하고도 오히려 무고죄로 구속된 어느 여성을 수많은 여성단체가 지원하여 결국 재판에서 이기게 한 사례 등은 여성들이 뭉쳤을 때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 좋은 예들입니다.

**여성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밖에도 소비자보호운동, 공해추방운동이라든가 참교육학부모회처럼 우리 여성들이 소비자로서 혹은 학부모로서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지역주민으로서 내가 사는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며, 혹은 학부모로서 교육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도 이제는 이러한 여성단체나 사회단체에 적극 참여해 정치와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을 자기 주변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잘못된 정치를 바로 잡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체들은 그 순수성에도 불구하고 단지 정부에 대한 압력단체로 작용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한다 해도 잘못된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로잡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없이 겪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가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고 이것을 바로잡아 달라고 외쳤지만 정권이 눈 하나 깜짝했습니까? 우리는 너무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노동자나 농어민, 서민, 여성을 위해 고민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며 우리도 더이상 그들의 온정만을 바라고 있다는 것은 우둔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부정선거와 야합을 통해 거대여당을 만들고 여당의 횡포를 통해 악법을 만들어 결국 법과 제도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꼼짝없이 묶어 놓고 있습니다.

**정치판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사회의 여러 단체들, 그리고 양심적



인 사람들과 함께 다양한 여성운동을 전개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정치관을 바꾸어 나가기 위한 직접적인 정치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가 유권자로서의 권리행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정치적 제몫찾기는 여성들이, 유권자의 절반이 넘는 여성들이 자신들의 한표를 올바르게 행사하는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여성들은 이제 돈을 뿌리는 사람, 폭력배 두목에게 석방 탄원서나 쓰는 사람, 가족법 개정 반대하고 우리의 어린자녀를 돌보아 줄 탁아소를 설치하자는 탁아법제정에 반대하는 사람, 여성의 고통을 알지 못하고 여성의 권리향상에 관심이 없는 사람, 국회에서는 거수기 노릇이나 하면서 각종 이권단체에서 뇌물받아 해외여행이나 즐기는 구태의연한 정치인,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은 기업가, 이런 사람들은 쉽게 잊지 말고 수첩에 적어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표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껏 우리는 우리의 대표로 대통령 1인과 국회의원 299명 합해서 300명의 대표를 뽑았지만, 이제 지방자치체가 실시되면 지방자치단체장,

**유권자로서의  
권리행사를  
철저히  
합시다.**

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하여 5000명이 넘는 우리의 대표를 선출하게 됩니다. 유권자로서의 정치참여폭이 훨씬 늘어난 셈입니다. 그만큼 보다 철저한 ‘한표행사’가 중요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여성이 여성을 뽑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남성들도 올바른 여성후보를 지지해야 하지만 그렇게 기대하기는 아직 힘듭니다. 남성들은 아직도 ‘여성은 남성보다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성들도 이런 생각에 은연중 감염되어 있습니다. 아주 어릴때부터 이렇게 생각하도록 키워져왔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전 인구의 반인 여성을 정치적으로 무능한 집단으로 키우는 것이 정치가에게나 자본가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을 불신하도록, 그리고 여성자신들도 여성을 불신하도록 키워져 온 것입니다. 이제 여성들은 과감히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고 우리자신의 능력을 확신합시다. 여성이 당하는 고통, 고민은 여성들이 가장 잘 대변할 수 있습니다.

**공명선거운동을  
여성이  
앞장서서  
펼칩시다.**

두번째, 우리의 귀중한 한표, 한표가 불법·부정선거에 의해 강탈당하지 않도록 광범위한 공명선거운동을 펼쳐야 합니다. 특히 선거철마다 벌어지는 선심적인 지역개발, 통반장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회유와 압력등 관권이 개입하는 불법·부정선거를 철저히 막는 공명선거운동에 우리 여성들이 적극 나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뽑는 정치인이 어떤 정치를 하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는 이런 유권자로서의 권리행사 뿐만 아니라 잘못된 법과 제도를 바꾸고 우리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우리여성들도 이제 직접 '정치판'에 뛰어 들어야 합니다.

1989년 일본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26명을 놓고 격돌한 참의원 선거에서 22명의 여성이 당선하여 보수적인 일본의 정치풍토에 유례 없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것도 유명 여류인사들이 아니라 이전에는 평범한 주부들이 자신의 생활문제가 곧 정치문제임을 깨닫고 직접 정치무대에 등장한 것입니다.

“여성들은 여성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잘못된 선거 경향을 돌변시킨 것은 무엇이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성들의 분노였습니다. 자민당 수뇌부의 뇌물수수사건, 권력자의 여성관계스캔들, 과중한 소비세 문제 등이 자민당에 투표한 여성들을 격분시켜 자민당을 참패케 하고 여성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해줄 여성들을 직접 정치무대로 보냈던 것입니다. 11명의 당선자가 당시 그리 크지도 않았던 사회당 소속이었다는 사실은 이제 일본 여성이 진보를 지향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이제 더이상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 없고 직접 정치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정치가들이 일본보다 덜 부패했습니까? 우리가 평생 한 번 만져보기도 어려운 거액의 돈이 얼마나 우습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보여주었던 저 청문회의 폭로들을 잊었습니까? 우리여성들의 분노가 남성들보다 더 작습니까? 우리여성들이 덜 똑똑합니까?

이제 우리나라 여성들도 직접 현실정치에 뛰어 들어야 합니다.

정치판에  
직접  
뛰어 들어야  
합니다.

## 여성의 정치 진출을 위한 제도를 만듭시다.

### 우선 여성의 정치적 진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정치진출을 위한 어떠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는 이미 역사적으로 사회적 약자였고 지금까지도 약자인 여성들이 남성과 나란히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가 여성이 본래 정치적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회가 여성의 능력이 개발되는 것을 막아왔기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사회는 남성, 여성의 평등한 참여를 통해서만 이룩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여성에게 특혜를 주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들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도적 장치로는 공천할당제, 여성비례대표제, 당선할당제 등이 있습니다.

공천할당제란 여성의 정치참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여성후보가 많이 나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각 정당이 일정비율 이상의 여성후보를 공천하는 것을 말합니다(표1).

여성들의 정치참여가 활발한 스웨덴의 경우, 1970년대 정당에서 열심히 활동한 여성당원의 수는 5% 밖에 되지 않았지만 각 정당에서 정책적으로 여성후보를 30%씩 공천하였습니다. 초기에는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 결과 지금은 의회에 여성의원의 비율이 28%, 정부고위층 28%, 지방의회에 29% 등 많은 여성들이 활발한 정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표 2). 이외에도 노르웨이 집권당인 노동당은 모든 공천에

여성은 이제 정치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40%, 벨기에는 25%를 할당하고 있습니다.

(표 1) 외국의 여성할당제 실시현황

| 나 라 명 | 할당제 실시 방법        | 할당비율   |
|-------|------------------|--------|
| 대 만   | 1. 국회의원선거구 당선할당제 | 10%    |
|       | 2. 지방의원          |        |
|       | - 대만성 의회         | 25%    |
|       | - 대북시, 대웅시 의회    | 10%    |
|       | - 대만성 각 현시의회     | 10%    |
| 스 웨 덴 | 정당공천할당제          | 20%    |
| 프 랑 스 | 사회당-정당공천할당제      | 20~    |
| 벨 지 움 | 1. 일부정당-정당공천할당제  | 20~25% |
|       | 2. 여성 민중연합의      |        |
|       | 3분의 1 당선할당제      |        |

(여성신문 제76호)

(표 2) 유럽여성의 정치참여율

단위: %

| 나 라       | 행 정 부 | 의 회 | 지 방 의 회 |
|-----------|-------|-----|---------|
| 스 웨 덴     | 28    | 28  | 29      |
| 노 르 웨 이   | 22    | 26  | 23      |
| 핀 란 드     | 18    | 31  | 22      |
| 덴 마 크     | 15    | 26  | 21      |
| 아 이 슬 란 드 | 10    | 16  | 12      |
| 영 국       | 4.5   | 3.5 | 14.4**  |
| 서 독       | 5.9   | 9.3 | 13      |
| 이 태 리     | 3.3   | 7.9 | 5.5     |
| 프 랑 스     | 14.0  | 5.9 | 14      |

\* 북구는 1984년, 서구는 1983년 통계임.

\*\* 잉글랜드, 웨일즈 지방 지방의회선거 결과

자료: "지방의회의 여성참여 확대방안에 대한 논평", 「여성연구」, 제6권 제4호 p.106에서 재인용.

비례대표제란 앞에서 본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직접선거에

서 남성들과 겨뤄 여성이 당선되는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는 의원의 일정비율을 여성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당선할당제란 여성의 정치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 중의 하나로 의석의 일정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제도입니다. 대만과 프랑스는 오래전부터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에게 10%당선할당제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의 경우는 지방의회의 경우 10~25%를 여성에게 할당해 주고 있습니다(표3). 예를들어 대만성 의회는 의원을 4인 선출하면 그 중 한명을 반드시 여성으로 하며(25%) 대북, 고웅직할시의 경우는 7인 중 1인을(14.3%), 향, 진, 현, 할 시민대표의 경우는 10인 중 1인 이상을 여성으로 당선시키도록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표 3) 대만 여성의원의 의석분포

|         | 남성의원수 | 여성의원수 | 여성비율  |
|---------|-------|-------|-------|
| 입 법 의 원 | 345   | 51    | 12.9% |
| 지 방 자 치 |       |       |       |
| 대 만 성   | 67    | 10    | 12.3% |
| 대 북 시   | 44    | 7     | 13.7% |
| 고 웅 시   | 36    | 6     | 14.3% |
| 현 • 시   | 684   | 115   | 16.8% |

1982년 1월 선거결과

자료 : 내정부편(1985), 「내정통계지표」, pp.127.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여성단체들이 여성의 정치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정치권은 자신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이러한 요구를 철저히 묵살해왔던 것입니다.

여성은 이제 정치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여성의 정치권 진입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여성들이 또다시 '구경만 하고'있게 되면 여성의 불평등하고 고단한 삶이 개선되는 것은 더욱더 어렵게 됩니다.

모든 여성들이 단결하여 여성들의 정치진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요구합니다. 그리하여 직접 올바른 정치를 행해야 합니다.

지방의회에 적극 진출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일컬어지는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었습니다.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지방의회가 강제 해산된 이후 실로 30년만에 지방자치제는 우리 민중의 힘에 의해 다시 햇별을 보게 된것입니다. (다 알다시피 87년 6월항쟁으로 민중이 받아낸 6·29선언에 지자제를 다시 실시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방의회에  
참여  
합니다.**



물론 지자제가 현실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지자제를 내심 하고 싶어하지 않았던 현재의 권력(당연하겠지요. 지방자치제로 권력을 분산시키면 권력을 독점해왔던 기득권을 잃게 되니까요.)과 지자제선거를 자기정파의 차기 대통령선거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싶어하는 기존 야당 사이에 당리당락에 입각한 밀고 당기는 씨름이 있어왔습니다. 그 결과 지방자치제는 그 내용이나 선거방식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 점은 뒤에 가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이 지역행정의 정치를 직접, 혹은 대표를 통해 자율적으로 처리해나가는’, 그럼으로써 ‘민주정치의 원천이자 그 학교’라는 지방자치제는 제한적으로나마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며 이로써 민주주의 발전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지방자치제란 말 그대로 지역행정과 정치를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펴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광역의회(서울특별시,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직할시와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도를 광역자치단체라 합니다.)에 총 866명의 광역의회의원과 각 시, 군, 구에 총 4287명의 기초의회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91년 상반기 우리가 직접 뽑는 의원들로 구성된 지방의회는 교육, 주택, 상하수도, 교육시설개선, 쓰레기처리, 주민복지, 교통난 해소 등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문제들에 대해 조례나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예산·결산의 심의, 승인을 통해 혹은 행정감사 및 조사권의 발동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여성은 이제 정치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업무를 감시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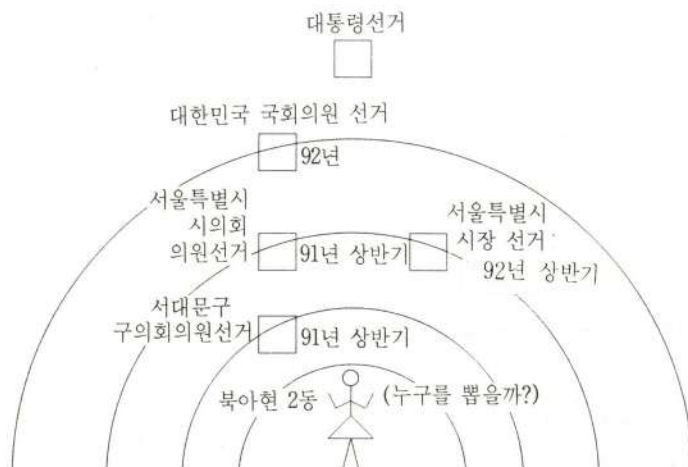
그리고 우리는 광역지역자치단체장—서울특별시장, 5개의 직할시장, 그리고 9개의 도지사—도 우리의 손으로 직접 뽑게 됩니다(92년 상반기). 이렇게되면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오로지 중앙권력에만 아부하는 출세주의자는 지역행정의 책임자가 되기 어렵게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기능

| 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에 관한 사무        |                                                                                                                                                                                                                                            |
|-----------------------------------|--------------------------------------------------------------------------------------------------------------------------------------------------------------------------------------------------------------------------------------------|
|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복지</li> <li>●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li> <li>● 생활공필자의 보호·지원</li> <li>●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li> <li>●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방역</li> <li>● 청소·오물의 수거 및 처리</li> <li>●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li> </ul>                         |
| 농림·상공업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용수 시설의 설치 및 관리</li> <li>● 농림, 축산,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li> <li>● 복합영농의 운영, 지도</li> <li>● 농가부업</li> <li>● 소비자 보호</li> <li>● 중소기업 육성</li> </ul>                                                        |
|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 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개발 사업</li> <li>● 지방토목, 건설사업</li> <li>● 도시사업</li> <li>● 지방도로, 시·군도로의 신설·보수</li> <li>● 상·하수도 설치, 관리</li> <li>● 공원, 녹지, 관광, 휴양시설 설치</li> <li>● 주차장, 교통표지등 교통편의 시설</li> <li>● 지역경제 육성·지원</li> </ul> |
| 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원, 유치원, 초·중·고교설치</li> <li>● 도서관, 운동장, 광장, 체육관, 박물관 등 공공교육·체육</li> <li>● 지방문화재의 지정 보호 및 관리</li> <li>● 지방문화·예술의 진흥</li> <li>●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li> </ul>                                            |
|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및 직장 민방위 조직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 감독</li> <li>● 화재 예방 및 소방</li> </ul>                                                                                                                                   |

#### 〈지방의회의 주요기능〉

1. 조례의 제정 및 개폐
2.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 승인
3. 행정 감사 및 조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 2동의 주부 김숙희씨의 경우〉

따라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이제껏처럼 우리 학부모가 매년 2조원이 넘는 교육세를 납부하면서도 자녀들이 2부제 수업이나 과밀학교에 시달려도 그돈이 어디에 쓰이는 지 알 수 없었던 상황이나, 4조원이 넘는 서울시 예산이 서울시민의 편의를 위해 올바르게 사용되는지, 아니면 독재권력의 연장을 위한 정치자금이나 민주인사를 잡아다 물고문, 전기고문을 하는 안기부 활동비로 사용되는지 어떠한지 서울시민들이 전혀 알 수 없었던 상황은 많이 변하게 됩니다.

물론 현재의 지방자치제법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내 손으로 우리지역 살림을 꾸려나가는 ‘지방자치’본래의 의미가 많이 퇴색된, 아주 제약이 많은 법입니다.

첫째, 주민참정권이 제약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처리해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거나, 지역의회에 내보내는 자신의 대표를 직접 선출할 뿐만

아니라 대표로 뽑힌 사람들이 잘못할 때는 이를 소환하고 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주민소환권). 또한 지역주민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지역내의 중요한 문제들, 예를 들어 핵폐기물처리장을 건설하는 문제를 지역주민이 투표로 결정한다든가(주민투표권) 지역내의 심각한 공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해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직접 '공해방지법'같은 것을 만들어 지방의회에 제출한다거나(주민 발안권) 하는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둘째, 89년 9월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판결을 내린 기탁금제도(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광역의회 700만원, 기초의회 200만원, 광역단체장 3000만원, 기초단체장 1000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해야 합니다.)가 여전히 온존되고 있어서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후보로 나서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풀뿌리자치제'가 아니라 '돈뿌리 자치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이 생겨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밖에도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야 할 경찰행정이 여전히 중앙정부의 권한으로 남아 있다거나 교육자치제 역시 상당히 형식적이라는 점도 지방자치제의 본래의 의미를 제약시키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분명 사회의 민주화, 정치의 민주화를 위한 일보 전진이며, 특히 다음의 세가지 점에서 우리 여성들이 직접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교육, 생활환경개선, 소비자보호, 탁아소 설치, 청소년 복지 등의 사업은 우리 여성들이 지금까지 계속 해 온 일이고 따라서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일 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아이들이 제대로 교육받기 위해서는 우리지역내 탁아소가 어디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각종 복지사업은 우리 여성들이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몇개가 있어야 하는지 학교시설은 어느 수준이 되어야 하고 학교에 무사히 갔다오기 위해서는 어디에 신호등이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재정을 우리보다 알뜰하게 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여성들이 지방의회에 참여할 때 지역살림은 훨씬 더 잘 꾸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성이 당하는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이  
지방의회에  
진출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여성들이 당하는 수많은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여성이 직접 지방의회에 진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에 대한 상담이나 아동문제에 대한 상담을 받기도 하고, 여성들이 직업을 가지고 싶어도 기술이 없어 취직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기술교육을 시켜주기도 하고, 매맞는 여성이 일시적으로 피신을 할 수도 있는 여성들의 집(여성회관), 엄마, 아빠가 직장에 나가 집이 비어도 아이들이 마음놓고 가서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림도 그릴 수 있는 아이들의 집(아동센터), 학교에서 일괄하여 점심식사를 제공해주는 학교급식, 여성의 일할 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지방산업을 육성하는 일등은 우리 여성들이 얼마나 필요로 하는 것 들입니까?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는 세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 현실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지역행정, 지역정치에 여성이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세째, 그동안 정치에 무관심했고 그럼으로써 현실정치에서 소외되어 왔던 여성들이 다시 정치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나 의회에서 정치적 경험과 훈련을 쌓아나가는 것이 아주 효율적인 일입니다.

따라서 지역의 여성단체나 민주단체와 연대하여 많은 여성이 지방의회에 진출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여성은 이제 정치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지방의회는  
여성의 정치적  
훈련을 위한  
매우  
효율적인  
장입니다.

여성도 국회에 진출합시다.

지자체가 실시되어도 외무, 국방, 사법, 국세, 물가, 금융정책 등 진정한 의미의 전국적 영향력을 미치는 각종 정책이 마련되고 법과 제도로 입안되는 곳은 국회입니다.

국회에도  
진출  
합시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국회에도 진출해야 합니다. 더이상 국회가 남성들만의 전유물이 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지방의회나 국회에 나설 수가 없다면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여성후보를 지원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성후보의 당선을 위해 후원금을 모집하는 일, 직접 선거운동원이 되어 뛰는 일, 동네의 아줌마들이나 직장내의 여성동료에게 여성의 정치진출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일 등등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참 많습니다. 즉 우리모두 여성의 정치 진출을  
여성후보를 위해 하나의 정치적 세력으로 묶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여성의 정치적 진출이 가능하도록 선거법  
등을 개정하는 운동을 펴나갑시다. 그런데 정치적 진출이 가  
로막혀 있는 사람은 여성뿐이 아닙니다. 이 땅의 가난하고  
힘없는 노동자나 농민도 정치참여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습  
니다.

따라서 우선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정당법, 국가보안법,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하고 있는 노

## 여성은 이제 정치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동조합법 등은 전면 개정, 폐지 되어야 합니다.

둘째, 기탁금제도의 폐지를 포함하여 철저한 ‘선거공영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후보자의 선거운동 비용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며 후보자가 개인이 쓰는 선거자금은 최소화시키는 선거공영제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수억대의 돈을 쓰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암암리에 부추키게 되고, 이렇게 돈을 쓰고 당선이 되니 국회의원 월급으로는 만족을 못해 각종 이권에 개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째, 정당연기명 투표제, 비례대표제(의석의 반은 직접선거로, 의석의 반은 정당지지율에 따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제도)가 채택되어 사표를 방지함으로써 소수의 의사와 견해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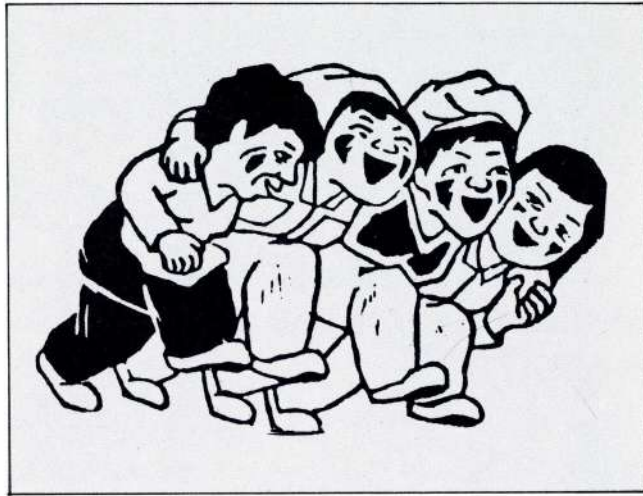
특히 비례대표제 후보의 반은 여성으로 되어 여성의 정치적 진출이 촉진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땅의 여성들은  
순종과 인내의  
쇠사슬을 뚫고  
사회의 주인,  
정치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갑시다.

이제 여성도 정치적으로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여성들은 전 민중과 연대하여 여성에게 정치적 무관심과 무감각을 조장하고 순종과 인내만을 강요해 온 독재 정치, 부패한 정치, 무능한 정치, 남성독점의 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모든 소외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이 진정한 사회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정치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여성들이 앞장서서 나아갑시다.



여성이기록하고여성이기억  
 하는여성을기록하고여성을  
 기억하는바로이곳성평등도  
 서관여기여성이기록하고여  
 성이기록하고여성이기억하  
 고여성을기록하고여성을  
 성평등도서관여기  
 록하고여성이기억하는  
 을기록하고여성이기억하  
 는바로이곳성평등도서관여  
 여성이기록하고여성이기억  
 하는여성을기록하고여성을  
 기억하는바로이곳성평등  
 도서관여기



서울시여성가족재단

[www.genderlibrary.or.kr](http://www.genderlibrary.or.kr)

여성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며, 남성과 똑 같은 권리를 갖는다.

여성이 단두대에 오를 권리가 있다면 연단위에 오를 권리도 가져야 한다.

〈1791 프랑스 「여권선언 제10조」〉

「역사적 전환기에 있어서의 변화는 언제나 자유를 향한 여성의 진보에 의해 결정 되어 진다.」

〈1841, 찰스 푸리에〉

「여성은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1949, 「제2의 성」, 시몬느 드 보봐르〉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근로여성은 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며 다음세대의 출산과 양육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모성을 보호받으면서 성별에 의한 차별없이 그 능력을 직장 생활에서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1989, 남녀 고용평등법 제2조〉